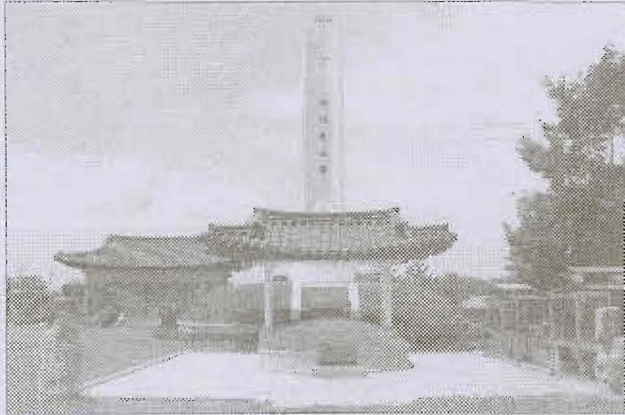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성 요셉성월)
제32권 18호(나혜) 2012-3-25

[목상]



해미 순교탑<대전교구, 서산서 해미면 소재> 병인박해때 무명의 많은 순교자들은 한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스인 몇몇이 필립보에게 한 이 청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의 염원이 아닌가!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류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으로
자기 비움과 희생, 죽음을 통해서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신다.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이의 시선이
향하고 있어야 할 곳을 일깨워 주신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치욕이
부활이라는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듯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른 이에게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과
아버지께서 존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죽음의 시간을 회피하고픈 내적 번뇌를 이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樞-

martinec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락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김병조 마틴, 강필진 알렉산더
주 일	(연) 이호순 프란체스카, 모병익 베드로, 양건배 비오 & 황옥분, 신태동 요아킴, 이현호 요한, 주리회 요셉,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김명숙 요안나, 이승이 안나
낮 미사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배경락 다니엘 & 김미성 에스텔 가정, 배태임 안나, 남명자 테레사,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전안나 & 전복레 테레사 가정, 이강웅 요셉, 문 밍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31,31-34

화답송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5,7-9

복 음 ○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 음 요한(John) 12,20-33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51	151	154
봉헌	257	257	268
성체	291	291	292
파견	149	149	15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마리아,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이며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하셨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하며”(루카1,28 참조) 하느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신 분이십니다.(루카1,38 참조)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은 그 삶을 순간마다 하느님의 주도권에 따라 만들어 갑니다. 듣는 여인인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가시고, 자신의 마음 안에 그 하느님의 사건들을 간직하시며 그것들을 마치 단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이해해 가십니다.(루카 2,19.51 참조).

현대에는 신자들이 나자렛의 마리아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이의 연관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자들에게도, 마리아론과 말씀의 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영성 생활을 위해서나 신학과 성서학을 위해서나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실상, 마리아에 대하여 신앙의 학문이 밝혀 준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 진리의 가장 핵심에 자리합니다. 자신의 동의로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데에 결정적으로 협력하는 이 젊은 여인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는 말씀의 강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안에서 사람이 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개방성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내면화하고 동화하는 능동적 들음의 상징이며, 그 안에서 말씀은 삶의 형태가 됩니다.

28). 여기에서 저는,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말씀에 친숙하셨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께서 자신을 말씀과 동일시하시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음이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모님 영혼의 초상인 마리아의 노래는 온전히 성경의 실, 하느님 말씀에서 자아낸 실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에 얼마나 익숙해 계신지, 그 말씀들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신지가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되며,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생각이 얼마나 하느님 생각을 따르고, 성모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젖어 계시기 때문에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은 희생과 봉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알 이야기를 묵상할 때면 항상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한한 희생과 인내, 침묵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어린 시절 기억속의 어머니는 항상 맛난 음식은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음식만 잡수셨습니다. 또 식사 때에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 밥이 모자랄 때면 혼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서 숟가락 한 그릇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평생을 설 틈 없이 고단하게 일하셨던 어머니는 항상 몸뚱이를 입으시고, 짧고 꼬불꼬불한 아줌마 파마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어머니를 피해 멀리 도망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머니도 여자이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예쁜 머리를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입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사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밀알이 우리 자녀들 삶 안에 잘 썩어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어머니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와 신앙생활의 가장 훌륭한 멘토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났던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셨기에 마치 밀알처럼 땅속에서 썩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라는 복음말씀 역시 밀알처럼 먼저 죽고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밀알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과 재물을 보존하고자 하면

제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즐겁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요한 12.25-26)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산란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히려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낱김 없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러 곧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밀알 하나가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과 희생의 신비를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상처가 아플 때마다-

비밀은 친한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새어나오고
소문은 가까운 사람이 내며
배신은 믿는 사람에게서 당하기 마련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아는 사람끼리 주고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친한 사람이었고,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희정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성금요일(4월6일) : 오후 3시, 야외 14처, 전신자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탄탄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27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요한묵시록 통독 ㉡선행1회 ㉢주모정기도 등 세보속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신부님 출장 판공성사 중 평일미사 시간 변경
 - 3월28일(수)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3월29일(목)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오늘 주일(25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악의 세력과 싸울 힘과 용기를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한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시요.(점심제공)
 - * 문의 : 구리아 단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25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정동호 하삼마오로 & 병옥 율리아 대표부부 ☎(310)780-9055

-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4월2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555 Temple St.(+ Grand Av.) LA 90012
 - 미사 주례 : 호세 고메스 주교님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4월1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 구역장 모임
 - 일시 : 3월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회의실
 - * 4월 구역장/반장 월례회의는 쉽니다.
- ◆ 4월 안나회 모임 임시변경
 - 일시 : 4월1일(성지주일) 오전 11시 미사후, 회의실
 - 문의 : 한준선 루시아 안나회 회장 ☎(310)738-4387
- ◆ 백삼위 골프회 4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4월14일(토) 오전 9시
 - 장소 : Recreation Park 골프코스(롱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故 이호순 프란체스카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문 바티스타 수녀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호순 프란체스카 님께서 지난 3월18일(한국시간) 부산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육친의 어머니를 여의신 바티스타 수녀님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립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5일(주일) : 토린스 서 3반 (비빔밥 : \$3) 주일학교 (피자)
 - 4월1일(성지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 9학년(핫도그 & 나초)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민형기 신순철 유선식 차정애 한연만	김성현 박근식 심재은 육근주 체미정 한길선례	김 은 박완철 안태갑 이경태 최수복 최원석 송마이클	김정엽 박정자 우영희 이숙화 최이원	김종문 배경락 유경자 이용식 정훈모 최진수	김현숙 배태업 유근우 정훈모 최진수	합계 : \$4,100
미사헌금 : \$2,969							
성전헌금	장미순 신순철 이숙화 최이원 송마이클	김정엽 안태갑 이용식 최진수	김종문 유경자 이일길 한연만	김현숙 유근우 정훈모 한길선례	박완철 유선식 채미정 최원석	배경락 이경태 최원석	합계 : \$3,195
감사헌금 : 김 옥 우영희 박이레네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오늘주일(3월25일)부터 5월20일 주일까지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김정심 크리스티나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부활절 은총시장행사 도내이션 받습니다.

-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부활절 은총 시장 행사(운동회와 카니발 축제)에 필요한 상품 도내이션을 받습니다. 뜻있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 일시 : 4월8일 부활절 학생미사후 친교장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시간 :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 장소 :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두 학년씩 진행합니다.
* 25일(오늘주일) : 3,4학년
* 4월1일(성지주일) : 유치부, 1,2학년

산악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3월말까지

- 기간 : 지난 2월1일(수)부터 쓰기 시작한 성경을 3월31일(토)까지 계속합니다.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요일 4:30pm 성당출발)~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교무주임 ☎(424)903-6637

남가주소식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갱신 미사

- 일시 : 3월26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성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Kingsley Dr.)
- 대상 : 전신자
- 미사집전 : 황광우 요셉 신부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배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3/7(수)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페트릭 781-0787 3/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배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동수 배드로 218-7340 3/17(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3/1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신정희 클라라 424-903-5051 3/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3/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올리아나 634-6923 3/8(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3 3/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10(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3/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국세관 세바스찬 541-7644 3/8(금) 오후 7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3/10(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3/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됩니다.
-------------	------

못 박는 사람

나에게는 오랜 화두(話頭)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입니다.

어린 시절 교리 시간에 수녀님에게서 망치로 박은 못과 그 못 자국으로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못이 떠올라 한 편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평생 '못만 천착하는 시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100편을 담은 시 전집을 펴낸 적이 있었는데, 100가지의 못 자국을 담은 내 삶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못을 뽑습니다 / 휘어진 못을 뽑는 것은 /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 못이 뽑혀져 나온 자리는 / 여간 흉하지 않습니다 / 오늘도 성당에서 / 아내와 함께 고백성사를 하였습니다 / 못 자국이 유난히 많은 남편의 가슴을 / 아내는 못 본 체 하였습니다 / 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 /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 둔 못대가리 하나가 / 쏘옥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 <고백성사> 전문 -

이 시는 <못에 관한 명상> 연작시 중 첫 작품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참회를 통해 신성사적인 측면에 접근을 시도한 보잘것없는 작품입니다. 하느님 앞에 죄지는 자로서 인간이 고해하는 순간에도 그 원죄는 말끔히 씻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속죄와 참회는 또 다른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점성술사인 어느 왕이 자기 별을 읽고서는 곧 재앙이 닥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바위로 집을 짓고 바깥에는 보초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왕은 액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창문까지 봉쇄했습니다. 왕은 스스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못 박힌 그는 또 다른 자신의 감금한 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못에는 죄와 벌의 못이 있고, 가난한 달동네의 굶은 녹슨 못이 있고, 한 시대를 저항하다 처형당한 역사의 못이 있고, 지나치게 경도된 좌·우파의 사회적인 못들이 있습니다. 이 못들의 고통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박고 못 빼는 일은 인간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에게 박힌 못'은 부활을 통한 '신성사(神聖事)의 재현'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아우구스티노 /

시인,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장

☞ 이걸 알아주세요.

개별 고백 대신 공동 고백성사?

언젠가 제가 다니던 본당에서는 개별고백 대신 공동고백성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고백성사에서 저를 포함 모두 다(저의 느낌이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깨닫게 되어 굉장히 감동적이었지요. 그런데 공동고백을 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개별 판공성사만 하더군요. 필요한 경우 개별고백을 하고 판공성사 때에는 공동고백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합동고백성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로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을 들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성찰할 수 있지요. 사실 본당의 그 많은 신자들이 일정한 시간 안에 몇몇 신부님들로부터 고백성사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니까? 때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릴 위험조차 있지요.

이런 이유로 공동참회 예절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개별고백 없이 바로 일괄 사죄를 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고백 없는 공동사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죽을 위험이 있거나 사제가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교구장만이 합니다(교회법 961조 참조). 물론 신자들 중에는 합동고백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많은 신자들은 일괄 사죄를 하여 판공성사를 보았을 경우 무엇이 아쉽고 성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듯이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불편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점점 익명화 현상이 깊어져 가는데 이런 공동고백으로 익명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참고로 공동 사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백자는 합당한 준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경우 가능한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고백을 해야 합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